



오도승으로 보는 한국불교

무산스님

최늘선사 '悟道花'

최늘 선사는 5-6세 때 땅에 떨어진 종이만 보면 쫓는 버릇이 있었다. 특히 글이 쓰여진 종이를 주우면 벽에 붙이면서 '내가 뒤에 배울 것이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특이한 행동에 사람들은 그를 '속세(俗世)의 신명스러운 씨' 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하였다.
속종 44년(1718) 지금의 고흥인 홍양현 장사촌에서 태어난 선사는, 4세 때 부모님을 따라 낙양을 응계촌으로 옮겨와 살다 14세에 증광사에서 촉발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기 시작하였다. 18세에 동정침지(頓淨淨知) 대사에게 사미계를 받고 19세에 만리(萬里) 대사에서계서 구족계를 수지했다. 선사의 법명은 최늘(最訥), 법자는 이식(耳食), 법호는 묵암(默庵), 속성은 박 씨다. 먼저 조계산에 주석하고 계신 풍암(楓庵) 화상에게 5년 동안 수학하며 여러 경전을 두루 공부했다. 그리고 호암(虎岩),

洗沐春山古澗濱(세욕춘산고간빈)
虛明無復可滯塵(허명무복가전진)
本來清淨何須浴(본래청정하수욕)
但滌多生罪業身(단적다생죄업신)

봄 산골짜크 오랜 시냇물에 목욕하니,
탕비고 환히 밝아 다시 씻을 티끌 없다.
본래 맑고 깨끗한데 무엇 때문에 목욕을 하는가,
다만 여러생 죄업의 몸을 씻을 뿐이네.

선사의 깨침과 가르침은 하늘이 침묵하다 할 말이 있어 천둥으로 말을 하는 것과 같고, 땅이 침묵하여 말하지 않다. 가바람으로 말하는 것과 같은 이(理)를 말로써 깨닫는 것의 선견이다.

하늘의 말인 천둥은 무망(無妄: 홍망이 없는 깨달음의 극)으로서 백과(百果)의 싹을 트게 하여 만물을 기르는 것이며, 땅의 말인 바람(風)은 관(觀) 소리로 보고 듣는 것 즉 깨달음의 천리

추위를 당해 비로소

눈속의 매화 볼수 있네

회암(晦庵), 용담(龍潭), 상월(霜月) 선사 등 당시 여러 큰 종장(宗匠)들을 찾아다니며 수학하였다. 마침내 명진(明眞) 선사로부터 선지(禪旨)를 얻었다. 또한 영해(影海) 선사에게서 격의(格外)의 선지를 깨우쳤으며, 용맹정진 2년째인 정월, 이르게 핀 매화꽃을 보고 화연대오 하였다고 한다.

안으로써 씩고 부패하여 나쁜 향기와 악을 날려 보내어 깨끗한 땅을 만드는 것이다. 이에 사람은 모름지기 도견(陶甄) : 만들어지는 그릇과 같으므로 행주좌와(行住坐臥)를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사람은 누구나 적적(寂寂)하게 만들어야 상승(上乘)에 머물 수 있다고 가르침을 주었다. 마음이 항상 고요하지 못하면 형상이 있는 온갖 물건과 세상의 모든 일을 고무(鼓舞) : 천둥이 울어 흔들고 바람과 비가 불어 모든 것을 쓰러뜨리는 것처럼 만든다고 하였다.

사람은 항상 과묵하여야 한다. 과묵은 침묵의 본색(本色)으로서 침묵의 본지(本地)가 광경(光景)하는 것이다. '마음이란 어떤 물건인고, 말할 때는 말이 그것이요, 침묵할 때는 침묵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선사의 큰 가르침으로 하여 선사의 회상에 모여드는 남자, 사람들이 재미때처럼 많아 표현하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한다. 최늘 선사는 정조 14년(1790) 조계산 보조암에서 좌탈입망하였다. 세수 73세 법랍 54세였다.

오도화(悟道花: 깨달음의 꽃)

盡道明星夜夜迴(진도명성야야회)
當寒須信雪中梅(당한수신설중매)
塵沙久却云成佛(진사구억운성불)
何用如今正覺來(하용어금정각래)

밝은 별(깨달음)의 별이 밤마다 돌아온다고 모두를 말하는데,
추위를 당해 비로소 눈 속의 매화를 볼 수 있네.

진사(塵沙) : 재물이 티끌과 모래처럼 많다는 뜻의 오랜 겁(劫)전에 부처됐다 하거니,
무엇하러 아직까지 깨치려 하는가.

불조욕(佛禱浴: 불법에 때를 씻은 마음)

■경주 해회선원 회주

“편안하고 안락함 수행자의 독”



◇94세 어린나이에 동진출가한 법홍스님은 율사로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청정수행생활로 수행자의 귀감이 되고있다.



가까이서 뵈 큰스님

법홍스님 (원호종 종정)

〈관무량수경〉에 보면 '계항훈수(戒香薰修)'라는 말이 있다. 훈습을 통해 계항이 몸에 스며들어 그 사람의 덕향이 온 사방에 풍긴다는 뜻이다. 안이비설신의 육근에 와닿는 술한 자극들을 제거하고서도 마음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덕향이고 보면 결코 속일 수 없는 경계를 드러내는 말이기도 할 것이다.

부산 초량동 산복 도로. 버스를 내려서 가파른 경사의 108계단을 올라야 절문 앞에 닿을 수 있는 금수사는 평생 청정비구로 계율을 근본 삼아 살아온 법홍스님의 계항을 느낄 수 있는 도량이다. 금수사 곳곳에 스며 있는 스님의 자취처럼 법랍 78년을 맞은 율사 법홍스님의 일거수 일투족에서 청정한 계항이 역시 자연스럽게 풍기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밤이면 부산시내의 야경을 한눈에 관망할 수 있는 금수사를 오르는 계단에서 스님과 마주했다. 병원에 다녀오시는 길이라고 한다. 아직도 종단 내외의 대소사를 행기며 전법 활동을 널리 펴시는 스님은 젊은 사람도 숨 차 하는 계단을 지팡이 하나로 가뿐히 오른다. 87세라는 세수가 믿기 어려울 정도다.

스님의 건강은 곧바로 스님의 수행력과 맞닿아 있다. 그것은 53살의 나이로 100일 동안 280군데의 절과 불상을 참배하는 '회봉수행'을 성대한 일화에서도 잘 알 수 있다. '회봉수행'은 일본 천태종의 대표적인 수행법으로 하루에 800고지의 산을 70여 리나 걸어야 하는 수행이다. 일본 천태종에서는 이 수행을 마쳐야 주지 자격을 준다.

'53살이나 된 사람이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의 만류가 심했어. 일년에 2-3명씩, 20-30대의 젊은 사람만 하는 공부법이나 이에 허락을 하지 않았지. 주지스님과 불교학원 원장이 보증을 서 주어서 겨우 동참했어. 불교가 일본에 들어온 이후 100일 회봉을 해낸 외국 스님은 내가 최초였다고 해.' 스님은 그렇게 눈이 채 녹지 않은 산을 하루 12시간씩 걷는 힘든 수행을 마쳤고 산에서 3년동안 두문불출하는 수행과 8년 안거를 계속했다. 이후 61살의 나이로 일본의 보림사 주지를 지낸 스님은

지금도 일본을 오가며 포교와 교육에 힘쓰고 있다. 스님은 일본어에 능통하다.

"한 달이면 반 이상을 일본에 가 있을 때도 있는데 일본 절에서는 할 일이 많아. 내가 일일이 빗자루 들고 청소도 해야 하고 300평이 넘는 정원의 정원수 가지치기도 하고, 어느 땐 가지치기만 해도 며칠씩 하거든. 그에 비하면 금수사에서 일상은 너무 할 일이 없는 편이지. 보편적으로 볼 때 한국 스님들의 생활은 너무 편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 수행생활이 편한것은 좋지 않아요."

편하고 안락한 생활이 수행자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계하시느 말씀이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생사를 깨치기 위해 출가한 스님들이 도리어 안락함을 탐하거나

스스로 경책할 때도

타인 꾸짖을 때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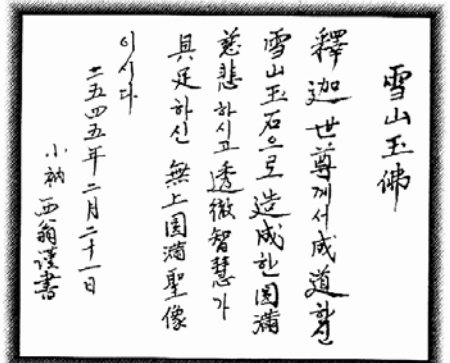
그 기준은 부처님 법

고급 취미를 갖는다면 이는 잘못해도 한참 잘못 됐으니, 항상 자신을 돌아보아 수행자답게 검소하고 간명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님은 지금도 원호종 행사장 여기저기를 다니며 직접 행사를 지시한다. 수십년 동안 몸에서 스님 근면함과 철저함은 스님을 가까이서 모시는 이들에게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니지만 스님의 부지런함과 철저함은 유명하다. 그도 그럴 것이 스님의 행동기준이 늘 부처님을 향하고 있으니 스스로를 경책할 때도, 또 타인을 꾸짖을 때도 스님의 기준은 하나. 오로지 부처님 법에 부합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스스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으니 부처님이 가르친 그대로를 행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스님은 지금도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에 입각해서 말하고, 행동하겠다는 서원을 새벽예불 때마다 되새기고 있다.

손조각품 雪山白玉佛



주진서



고불승림 방상 석공은 스님

▶ 세계불교도우의회(W.F.B)한국본부 (주)코리아 붓다

주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8동 1653-6 (새한빌딩 401호)

TEL : 02)864-8834-6 / 부산 051)637-2333 FAX : 02)839-2185 인터넷 : www.korea buddha.co.kr